한국무용과학회지, 2024, 제41권 제1호, pp.1~17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24, Vol.41, No.1 pp.1~17
1229-7836/24/640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24.41.1.1

국내 발레 분야 창작지원 정책환경 및 지원실태 분석†

권선영* 고양시정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국내 발레 분야 창작지원 관련 정책환경 및 지원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발레 분야 창작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구조 등의 정책환경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별 예산 및 사업자료 분석을 통해 무용의 세부장르별 지원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공연예술진흥정책의 부재, 창작 및 유통 지원 사업의 분절성, 유통 지원 사업의 단순성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발레 분야 지원실태 분석 결과, 창작 지원 사업에의 참여 저조, 교류 활동 침체, 유통 지원 사업에의 쏠림 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연동된 공연예술진흥정책 수립, 창작 및 유통 지원 사업 간 및 추진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유통 지원 사업 다변화 검토, 발레 분야 교류 활동 적극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발레 분야와 관련한 정책-현장-교육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창작발레, 발레창작, 공연예술정책, 무용정책, 발레창작지원

Ⅰ. 서론

한국 발레의 활약과 성과가 괄목상대하다. 해외 유수의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발레무용수가 약 250명 [1]에 이르며, 최근 우리나라 발레리나가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2]를 수상하였다는 소식은 한국 발레의 저력과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한다. 발레에 대한 대중적 인기 또한 급상승 중이다. 2015년 약 90억 원이었던 발레 공연 티켓판매액은 코로나 이전까지 지속 상승하여 2019년에는 약 160억 원[3]으로 1.5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국내 대표 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돈키호테', '라 바야데르' 등 인기 공연들은 전석 매진이 되는 흥행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취미 발레 시장까지 고속 성장 중이다. 발레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준 전공자가 되어 연습과 훈련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공연와 콩쿨에 참여하는 발레애호가들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발레에서도 아직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한국 발레계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발레 무용수의 유명 발레단 입단 또는 국제상 수상 등이다. 이와 달리 한국의 발레작품 ○○○, 한국의 발레 안무가 ○○○ 등에 대한 소식은 접하기 어렵다. 1960년대 국립발레단의 설립 이후로 클래식 발레의 성장과 함께 창작발레 역시 발전

† 이 논문은 서울문화재단 2023년 예술연구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homoartes@gmail.com)

1) 수석무용수, 솔리스트, 군무를 모두 포함함(문화일보, 2023년 6월 27일자 보도자료).

2) '브누아 드 라 당스'는 1991년 국제무용협회 러시아 본부가 프랑스 출신 무용가 겸 안무가인 장 조르주 노베르(1727-1810)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적 권위의 상이다. 한 해 동안 세계 각국의 정상급 단체들이 공연한 작품을 심사해 매년 모스크바에서 수상식이 열린다. 2023년 수상자는 우리나라 발레리나인 강미선씨이며, 이는 역대 다섯 번째 한국인 수상자이다. 강수진(1999년), 김주원(2006)년, 김기민(2016년), 박세은(2018)이 이 상을 받았다.

3)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연예술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의 '관객수×유료관객비중×평균티켓금액' 값을 산출함.

의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한국에서 창작발레는 여전히 주변에 머물러 있다. 연간 무대에 올려지는 발레공연 중 약 1~2%의 작품만이 창작초연에 해당한다[4]. 재공연된 창작발레 작품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좀 더 상회하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창작발레의 공연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은 부정할 수 어렵다. 발레의 창작력 부족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정옥희, 2022),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발레단은 그들만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창작 및 보완하고 안무가 육성을 위해 다양한 협업과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러한 작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 발레의 창작력 부족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 부족 문제로 지적한다. 사람, 교육, 시장, 정책의 부족이다. 첫째로, 발레 안무가의 부족이다. 전주현(2012)은 '외국의 발레에 대중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고급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과 함께 발레라는 귀족적 특성에 매료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발레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발레를 창조의 수단이나 매개체로 보지 않고 어떤 특수한 테크닉의 연마과정'(공연과리뷰 편집부, 2000)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규칙과 전통이 강한 위계적인 교육으로 길들어진 발레 무용수가 창조성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정옥희, 2022).

두 번째는, 창작을 위한 교육의 부재이다. 김경영, 김성민(2020)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무용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경우 창작, 안무, 글쓰기, 해부학 등 창의성을 요구하는 수업들이 다수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한국의 경우 특히 발레 커리큘럼은 이론 보다 실기과목과 고전 레파토리 교육이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학무용교육과정의 차이 뿐만 아니라 발레단의 안무가 양성 프로그램 또한, 활성화 측면에서 해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옥희, 2022). 현재 한국 발레교육에서 집중하는 테크닉 기초 확립과 고전의 재현도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기술훈련을 넘어서 전공자들의 예술적 식견과 창조적 상상력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김태원, 1990; 전주현, 2012) 앞으로도 한국 발레 안무가의 배출은 물론 창작발레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부재이다. 발레공연에서 관람결정요인과 만족도는 관객들이 선호하는 무용수나 발레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강미선, 2002; 김보라, 김재범, 2017; 유태균, 노경일, 이용건, 주형철, 2020). 무엇보다 관객들은 신체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무용수와 화려함을 강조한 무대장치와 무대의상 그리고 공연문화 특유의 심미성이 조화롭게 이뤄졌을 때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느낀다고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김선주, 2018; 이용건, 주형철, 김화례, 2016). 관객들은 전통적 발레 레파토리를 주로 선보이는 유명 발레단의 공연을 선호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양한 스타일의 발레 동작을 시도하며 무대장치나 연출 면에서 상징적이고 압축적인 형태를 보이는 창작발레 작품에서는 클래식 작품에서보다 흥미나 재미를 덜 느낀다는 것이다. 관람객들의 수요 뿐만 아니라, 창작작품을 의뢰하는 시장의 규모 자체도 협소한 까닭에(정옥희, 2022) 창작발레의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이룰 수요도, 공급도 모두 부족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정책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나 사회의 지원금은 무용예술 활성화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주요한 쟁점이다(전주현, 2012; 이주희, 2017). 특히, 무용은 공연예술이라는 점에서 공연장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작품을 제작하고 무대에 올리기까지는 수많은 인력과 여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상 재원조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활성화시킬 수 있어(이주희, 2017), 대규모 발레단을 제외한 소규모 발레단 및 개인 활동가들이 지원이나 후원 없이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국가나 사회의 공공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현(2012)은 창작발레의 경우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가 현대춤이나 한국춤에 비하여 드물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해 제공하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2017년도~2019년도의 '무용 세부 장르별 공연 건수 및 횟수' 중 '건 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해당 통계자료는 현재 2021년도까지 제공되고 있지만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자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데이터 활용에서 제외하였음. (통계자료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3&tblId=DT_433001N_4020&conn_path=I3)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며, 지원에 선정된다 할지라도 지속성의 문제에 봉착하여 결국 재정적 위기에 또다시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발레 분야에서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 지원이 확대되기만 한다면 해결 가능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 네 번째 문제인 '지원정책'에 주목하여 창작발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발레와 정책을 주제로 논의한 박은혜(2022), 장은영(2014), 전주현(2012)의 연구들이 있으나 발레 분야의 창작지원을 위한 정책 환경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은혜(2022)의 연구는 역대 정부별 공연예술정책과 발레사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나, 최근 정부의 정책과 지원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어 현 상황을 진단 및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장은영(2014)은 발레 분야의 창작지원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였으나 일부 기관 및 사례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전주현(2012)은 발레 분야의 창작활동 비활성화 원인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었지만, 세부적인 장르별 분석이나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외에도 무용 분야 전체에서 정책적 관점의 논의들을 펼친 연구들(남진희, 2018; 박성혜, 2020; 박재홍, 2018; 이주희, 2017; 전미애, 2020)이 있으나, 대부분 무용예술 관련 정책의 변천, 일부 현황,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어 발레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위 선행연구들에서 시도된 논의들의 공통점은 한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무용예술의 발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발레 분야에서의 창작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 정책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정책의 부족, 부실, 부재의 혼동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발레 분야의 창작지원을 둘러싼 정책을 검토하고, 지원사업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발레 분야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레와 정책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점에서 상기의 선행연구들과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의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국내 무용 분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및 정책의 구조, 실행기관별, 예산출처별, 세부장르별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발레 분야 창작지원에 대한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점을 지닌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발레를 포함한 무용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범주화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의 구조와 관계를 살펴본다. 정책대상으로서의 발레는 '무용'이라는 영역에서 지원되므로, 3장에서는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지원정책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세부적으로는 발레 분야의 지원실태를 분석하여 논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2, 3장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발레 분야 창작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및 제안하고자 한다.

Ⅱ. 무용 분야 창작지원을 위한 정책환경

1. 법률 및 정책 구조

현행법령 체계 안에서 '무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1년 제정된 「공연법」 에서부터이다. 그 이후 많은 문화예술 관련 법률들이 제정[5]되며 이들 법조문에서 무용을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창작활성화 지원과 연관된 법률들을 나열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본 절에서는 아래 법률들을 근거로 추진되는 현 정부 정책 중 창작활성화와 관련한 내용들을 추출하여 무용예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5)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법률은 현재 총 71건에 이르며, 문화재청 소관의 법률까지 포함하면 총 83건에 이른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방문일 : 2024년 1월 5일).

표 1. 무용 분야 관련 주요 법률 및 창작활성화 관련 내용(제정년도순)

제정년도	법률	무용 관련 내용	창작 활성화 관련 내용	관련 정책
1961	공연법	**제2조(정의)** "공연"이란,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1.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2012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 안됨)
1972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정의)** 1항 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이하 생략)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진흥 기금 사업 (매년 기금 운용 계획 수립하여 발표)
201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제1항 4호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2013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1조(목적)**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 추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등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2023~2027)
2017	국제 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2023~2027)

「공연법」은 1961년 '건전한 국민오락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시대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며 현재는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을 진흥'을 목적으로 발전해왔다. 즉, '안전'과 '진흥'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지만, 후자 보다는 주로 전자에 해당하는 공연(장)의 전문성·안전성 확보에 관련한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박광동, 2023). 이 때문에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독립된 법안으로서 「(가칭)공연예술 촉진법(안)」 으로 분법화 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고 있기도 하다(박광동, 2023; 박정인, 유현우, 2021). 또한 2012년에 수립된 11차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이후로 현재까지 약 10여 년 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아, '진흥'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현재 미비한 상태이다. 다행히 2022년 법개정을 통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주기를 각각 5년 및 매년으로 규정[6]함으로써 공연예술 진흥정책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3조 1항의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 5항의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6항의 공연예술산업의 육성 등과 관련하여 공연예술의 한 분야인 무용 또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행법 중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다. 그러나 제정 당시 '문화예술'의 정의는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1987년에 이르러서야 법개정을 통해 연극 및 영화 분야와 함께 무용이 포함될 수 있었다[7]. 이를 근거로 무용 분야는 현재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크게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향유기회확대' 단위사업으로 나뉘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무용의 창작활성화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예술창작역량강화' 영역의 '공연예술창작육성사업',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국제예술교류프로젝트지원사업'이 해당한다.

「예술인 복지법」은 2011년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까지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고 있어, 무용예술인들 또한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권리보호와 복지지원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법에서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근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담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은 크게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사업(국고)',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사업(체육기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문예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에 가장 큰 비중의 예산을 투입[8]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조성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은 2013년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적으로 '문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문화권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천명하면서 문화국가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법률로써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이종수, 2015; 전미애, 2020). 그러나 법률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기본법으로서의 규범력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개정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강기홍, 2016; 이종수, 2015). 이러한 양가적 평가 사이에서 현재 정부는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2023. 4. 11)하며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내용 중 예술의 창작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술창작의 새로운 주역으로 '어르신', '장애인', '청년'을 강조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예술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의 형태를 '관람' 등의 수동적인 참여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작'이라는 적극적인 참여로 확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민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로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는 문화예술 시장의 수요를 확대 및 확장시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연혁 참고 (https://www.law.go.kr/ 방문일 : 2024년 1월 5일)

7)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연혁 참고 (https://www.law.go.kr/ 방문일 : 2024년 1월 5일)

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공시에 공개된 '수입·지출 현황' 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은 82,545백 만원,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345 백 만원, '예술인생활안전자금' 사업은 19,087백 만원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http://www.kawf.kr/notice/sub10_4.do 방문일 : 2024년 1월 5일)

요하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데, 이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을 근거로 한 교류 관련 정책사업들과도 연결점을 갖는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2000년대 이후 문화 간 교류의 필요성 부상과 협력 중심의 문화교류가 강조(신혜선, 조효정, 2023)되면서 2017년 '문화 관련 여러 가지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직후 2018년에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구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전담기관으로서 설립[9]되어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에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던 여러 국제교류 사업들도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신혜선, 조효정, 2023). 전체적인 정책의 구조와 내용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시된다. '제 2차 국제문화교류기본계획(2023~2027)'(문화체육관광부, 2023)에 제시된 주요 전략은 '문화외교를 통한 솔루션 플랫폼 역할', '미래 기술,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계문화교류', 'K-콘텐츠 활용을 넘어 K-컬처 확산을 위한 쌍방향·장기적 문화교류'를 골자로 한다. 이 중 무용을 비롯한 공연예술 분야 창작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세 번째 전략에 포함되는 '공연예술 중장기 교류', '장기 문화교류 프로젝트 및 공동 창·제작 프로그램 정례화' 등이 해당된다. 발레 분야에서 창작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연구자들은 '교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는데(이주희, 2017; 정옥희, 2023), 이러한 교류 정책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발레 분야의 교류 활동 활성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각 법률은 무용을 공연예술로서, 문화예술로서, 그리고 누구나 삶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서 정의하며 무용에 대한 공연활동, 창작활동,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법제도와 현장 사이에는 늘 그렇듯 괴리감이 존재하겠으나, 이러한 법제도적 여건은 분명 무용예술의 창작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박은혜, 2022). 이 때문에 무용이 법제도적 지형 속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무용 분야에서의 창작활동과 관련한 다섯 가지의 법률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그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현행 법제도가 무용예술 창작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현 정책)과 그렇지 못한 부분(미비점), 그리고 지원할 수 없는 부분(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발레 분야 창작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활용과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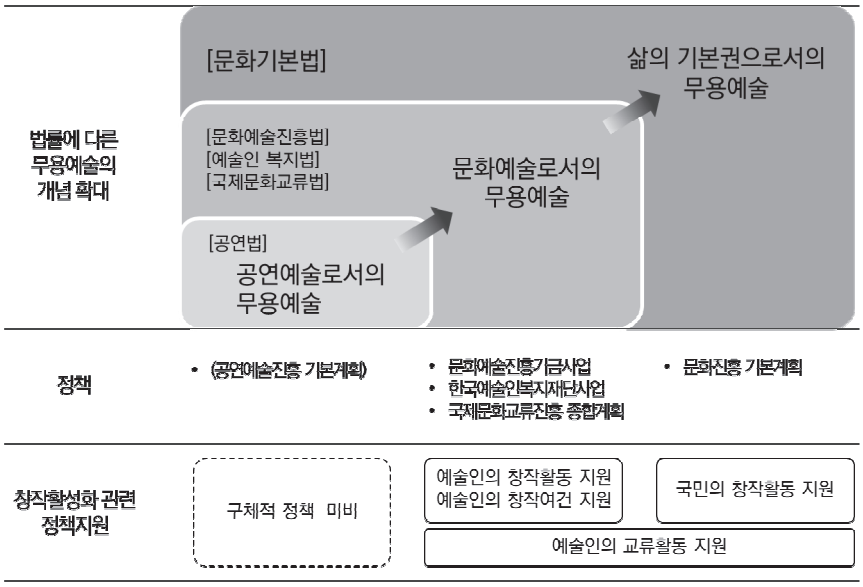

그림 1. 무용예술 창작활성화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 구조

9)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정에 따른 전담 기관 설립의 필요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된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18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명칭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신혜선, 조효정, 2023).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 무용 분야 창작지원 관련 지원사업 현황

2021년 문화예술정책 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22:351)에 따르면, 공연예술정책 분야는 '창작의 관점에서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 확충'과 '소비 및 유통의 관점에서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 정책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 분야 대상 창작, 유통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추출하여 두 가지 축으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본 절에서는 아래 지원사업들을 재원별, 기관별, 목적별로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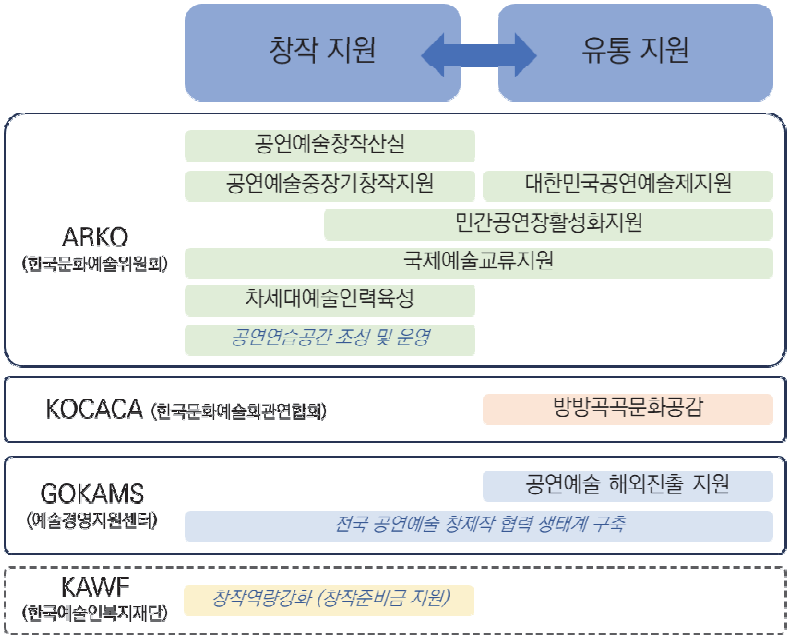

그림 2. 무용 분야 창작지원 관련 지원사업 현황

(기울임체로 표기된 사업은 일반회계, 그 외 나머지 사업은 모두 문예기금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공연예술 분야 창작 및 유통 지원을 위해 투입된 재정은 총 약 1,700억 원으로 나타난다(아래 표 2). 이 중 복지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보면, 직접적으로 창작 및 유통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1,010억 원에 이른다. 이를 국고 및 기금의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874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25억 원으로 유사한 규모를 보인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표 2. 공연예술 분야 창작 및 유통 지원사업 현황(1) - 재원별

재원	근거 법률	정책명	세부사업명	예산(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창작육성	25,773
			국제예술교류지원	4,899
		예술인력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32,629
		문화예술향유지원	방방곡곡문화공감	17,789
		예술의 관광 자원화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1,410
	소계			82,500
일반회계	문화예술진흥법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15,600
	공연법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2,975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창작역량 강화 (창작준비금 지원)	68,904
	소계			87,479
합계				169,979

보면 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 절에서 다룬 내용으로는 다섯 가지 법률 상에서 모두 무용을 비롯한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지원사업 분석 결과 「문화기본법」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을 근거로 직접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없었으며, 공연예술 분야는 대체로 「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원사업은 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 예술경영지원센터(GOKAMS), 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을 통해 추진된다. 목적별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 지원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유통'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들을 주로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산별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689억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약 662억 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약 178억 원, 예술경영지원센터 170억 원 순으로 나타나지만, 복지 사업 중심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공연예술 분야 창작 및 유통 지원사업 현황(2) - 추진기관별

추진기관	세부사업		지원목적		예산(백만원)		
			창작	유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육성	공연예술창작산실	○		8,754	25,773	66,276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8,604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구.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10]	○	1,091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7,324		
	국제예술교류지원		○		4,899		
	차세대예술인력육성		○		32,629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2,97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 강화 (창작준비금 지원)		○		68,90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문화공감			○	17,789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	1,410		17,010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	○	15,600		
합계					169,979		

지원목적별로 살펴보면, 창작 지원 목적의 사업의 예산규모가 1,205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창작준비금지원사업' 제외 시에도 동일). 창작 지원 사업은 주로 예술인 및 민간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및 공간 사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이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창작 지원 사업은 미래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통 지원 목적의 사업들은 대부분 축제 행사 및 공연을 위한 경비 지원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창작 지원 사업이 활동 지원, 공간 지원, 역량 강화 지원, 교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된 것과는 다르게, 유통 지원 사업은 단순 경비 보조 지원으로 제한적인 형태를 보인다. 공연예술이 유통 및 소비되는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연장 외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통 지원 체계 전반에서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공연장' 중심의 유통 지원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다양한 유통 채널 진화에 따른 지원방식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10)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사업' 내 '민간소공연장지원사업'이 통합됨으로써, 공연료 대관료 지원과 함께 자체기획공연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창작과 유통 지원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으로 표기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표 4. 공연예술 분야 창작 및 유통 지원사업 현황(3) - 지원목적별

지원목적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특징	예산(백만원)	
창작 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	예술인,단체	단계별 활동 지원	8,754	120,586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예술인,단체	다년간 연속 지원	7,324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예술인	인력 양성 지원	32,629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예술인,단체	연습공간 지원	2,975	
	창작역량 강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자금 지원	68,904	
유통 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민간단체[11]	경비 지원	8,604	27,803
	방방곡곡문화공감	지역 문예회관	경비 지원	17,789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예술단체	경비 지원	1,410	
창작 + 유통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예술단체	대관료 지원	1,091	21,590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인,단체	초청·협업 지원	4,899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다양[12]	예산, 공간, 인적 협력 지원	15,600	
전체			169,979		

법률 및 정책 검토를 통해 무용은 법적으로 공연예술이자 문화예술로서 규정되어 다양한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무용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주로 '창작' 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통' 지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기관이 각각의 사업을 전담하며 창작 지원과 유통 지원 사업이 다소 분절적인 구조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창작 지원 사업은 다년간의 변화를 통해 세분화되어 비교적 체계적인 지원사업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유통 지원 사업은 '공연장'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또는 향후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유통 지원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함께 관련 기관들은 창작과 유통이라는 영역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과 같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창작 및 유통지원 사업 간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Ⅲ. 발레 분야 창작지원 실태분석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원정책의 대상을 무용으로 한정하여, 무용 분야의 지원현황을 분석하고 세부적으로는 발레 분야의 지원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원사업별 선정결과에 대한 내용을 수집하여 사업별, 목적별, 세부장르별로 분석한다. 최종적으로는 발레 분야의 지원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함으로써 발레 분야 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한계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지원결과가 공개된 사업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이들 사업의 선정결과에서 선정단체, 선정프로그램, 지원금액, 세부장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정건수', '지원금액', '건 당 평균 지원금액'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데이터를 연도별, 사업별로 분석하여 발레 분야 창작지원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1) 예술단체가 아닌, 축제 형식의 공연예술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민간 단체를 의미함. (예: 장르별 단위협회, 조직위원회, 민간재단 등)

12) 공연단체-공연장, 중앙-지역, 민간-국공립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유통 시장 활성화 지원하고 있음.

표 5.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목록

추진기관	세부사업			재원	연도별 자료활용 여부 20′	21′	22′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1. 공연예술 창작육성	1-1. 공연예술 창작산실 운영	창작실험활동	기금	○	○	○
			올해의신작 지원(쇼케이스)		(무용분야 세부정보 미제공)		○
			올해의신작 지원(본공연)		○	○	○
			올해의 레파토리(재공연)		○	○	(정보미제공)
		1-2.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	○
		1-3.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	공연장대관료지원		○	○	○
			민간소공연장지원		○	○	○
		1-4.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	○
	2. 국제예술교류지원			기금	○	○	○
	3. 차세대예술인력육성			기금	(분석제외) 무용 분야 정보 미제공		
	4.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국고	(분석제외) 무용 분야 정보 미제공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5. 창작역량 강화 (창작준비금 지원)			국고	(분석제외) 자료 미공개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6. 방방곡곡 문화공감	6-1.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기금	○	○	○
		6-2.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기금	○	○	○
		6-3. 문예회관 기획 및 제작 프로그램		기금	(분석제외) 무용 분야 정보 미제공		
		6-4. 문화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		기금	-	○(신설)	○
예술경영 지원센터	7. 공연예술 해외진출 지원			기금	(분석제외) 선정결과 자료 미제공		
	8.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국고	-	-	○(신설)

1. 연도별 현황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발레는 3개 연도 합산 ‘선정건수’가 총 132건(20.2%)으로 주요 세 개 장르 중 가장 적게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2020년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2021년과 2022년의 선정건수가 현대무용은 약 33%~38%, 발레

표 6.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지원현황(연도별) (단위 : 건, 천 원)

연도	구분	전체	현대	발레	한국	통합	기타
2020	선정건수	218 (100%)	113 (51.8%)	26 (11.9%)	53 (24.3%)	13 (6.0%)	13 (6.0%)
	지원금액	5,962,296 (100%)	2,581,031 (43.3%)	1,173,370 (19.7%)	962,230 (16.1%)	1,025,700 (17.2%)	219,965 (3.7%)
	건 당 평균 지원금액	27,350	22,841	45,130	18,155	78,900	16,920
2021	선정건수	213 (100%)	71 (33.3%)	51 (23.9%)	55 (25.8%)	19 (8.9%)	17 (8.0%)
	지원금액	4,840,568 (100%)	1,920,256 (39.7%)	1,406,880 (29.1%)	743,700 (15.4%)	551,953 (11.4%)	217,780 (4.5%)
	건 당 평균 지원금액	22,726	27,046	27,586	13,522	29,050	12,811
2022	선정건수	221 (100%)	85 (38.5%)	55 (24.9%)	57 (25.8%)	11 (5.0%)	13 (5.9%)
	지원금액	5,795,649 (100%)	2,773,562 (47.9%)	1,683,713 (29.1%)	659,092 (11.4%)	554,580 (9.6%)	124,702 (2.2%)
	건 당 평균 지원금액	26,225	32,630	30,613	11,563	50,416	9,592
합계	선정건수	652 (100%)	269 (41.3%)	132 (20.2%)	165 (25.3%)	43 (6.6%)	43 (6.6%)
	지원금액	16,598,513 (100%)	7,274,849 (43.8%)	4,263,962 (25.7%)	2,365,022 (14.2%)	2,132,233 (12.8%)	562,447 (3.4%)
	건 당 평균 지원금액	25,458	27,044	32,303	14,333	49,587	13,080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는 약 24%~25%. 한국무용은 약 25% 정도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2020년에는 현대무용 약 52%, 발레 약 12%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레 분야의 창작활동은 코로나 사태에서 다른 장르에서보다 더욱 위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발레 분야는 '선정건수'는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그렇지 않다. 3개 연도 합산 발레 분야의 지원금액은 총 약 42억(25.7%)의 규모로 현대무용 보다는 작지만, 한국무용 보다는 컸다. 이는 발레 분야가 '건 당 지원금액'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석결과 현대무용은 건 당 평균 약 2,700만 원, 한국무용은 약 1,400만 원인데 비해 발레는 건 당 평균 약 3,200만 원 수준으로 지원금액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분석의 한 단면으로, 무용 분야 지원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분석에 활용한 각 사업들은 추진목적과 지원대상, 지원규모가 모두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지원현황을 사업별로 분석하여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시켜 가고자 한다.

2. 사업별 현황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지원사업 현황을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발레 분야는 3개 연도 합산 '(1-3-a)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과 (6)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내 '(6-1)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형에서 각각 28건, 78건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7). 이 두 사업은 모두 대관료 지원 등 공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작 활성화 및 발전에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는 '공연' 활동을 지원한다.

표 7.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지원현황(사업별) - 선정건수 (단위 : 건)

	지원사업		전체	현대	발레	한국	통합	기타
1. 공연예술 창작육성	1-1 공연예술 창작산실 운영	a. 창작실험활동	19	9		6		4
		b. 올해의신작 지원(쇼케이스)	8	7		1		
		c. 올해의신작 지원(본공연)	21	16	2	3		
		d. 올해의 레파토리(재공연)	15	10	3	2		
	1-2.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44	11	5	6	22	
	1-3.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	a. 공연장대관료지원	188	57	**28**	96	4	3
		b. 민간소공연장지원	16				16	
	1-4.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23	15	2	6		
	소계		334	125	40	120	42	7
2. 국제 예술교류 지원	2-1. 예술가해외레지던스 지원		22	18	1			3
	2-2.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41	37	1	3		
	2-3.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사업		21	20		1		
	소계		84	75	2	4		3
6. 방방곡곡 문화공감	6-1.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185	53	**78**	36		18
	6-2.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42	13	8	5	1	15
	6-2. 문화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		4	1	3			
	소계		231	67	89	41	1	33
8.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3	2	1			
합계			652	269	132	165	43	43

이 두 사업에서 선정된 발레 프로그램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창작 공연', '클래식 공연', '공연 기획'의 영역으로 구분된다(아래 표 8). 이 두 사업에서는 클래식 공연 보다는 창작작품(일반)과 특히, 발레극 형태의 창작공연에 비교적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발레극 공연으로는 인천시티발레단의 〈빨간모자〉, 전북발레시어터의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및 〈발레컬 '나의 어린왕자 이야기'〉, 부산발레시어터의

〈발레로 보는 동화이야기 '신데렐라'〉 등으로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8. 유통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발레 공연작품 현황

구분		선정건수(건)		지원금액(천 원)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연장대관료지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창작	일반작품	15	22	25,184	530,149
	발레극	4	42	6,661	940,057
	강연형 공연		1		18,630
	소계	19	65	31,845	1,488,836
클래식	전막	3	6	17,930	253,895
	갈라	1	7	4,389	85,984
	소계	4	13	22,319	339,879
축제 및 행사 주최		5		18,832	
합계		28	78	72,995	1,828,715

그 다음으로, 발레 분야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사업으로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9).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공연예술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 초청 및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는 '문화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이라는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창작과 유통 지원이 다소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존 사업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선정작들을 살펴보면 엠발레단 '돈키호테'(2021년 지원), 인천시티발레단 '지젤'(2022년 지원), 유니버설발레단 '더 발레리나'(2022년 지원)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 및 제작하기 보다는 그간 제작이 어려웠던 기존의 전막 발레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주요 목적은 유통 지원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발레 분야에서 창작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지원금액을 받고 있는 사업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는 것은 발레 분야는 유통 지원 사업 참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레 분야의 창작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1-1. 공연예술창작산실 운영사업'에서도 여전히 발레 분야의 수혜실적은 저조하다.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2.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서도 발레 분야

표 9.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지원현황(사업별) – 지원금액 (단위 : 천 원)

	지원사업		전체	현대	발레	한국	통합	기타
1. 공연예술 창작육성	1-1 공연예술 창작산실 운영	a. 창작실험활동	217,800	107,600		78,200		32,000
		b. 올해의신작 지원(쇼케이스)	139,000	121,000		18,000		
		c. 올해의신작 지원(본공연)	1,102,000	839,000	116,000	147,000		
		d. 올해의 레파토리(재공연)	530,000	347,000	115,000	68,000		
	1-2.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3,154,900	560,000	**520,000**	266,900	1,808,000	
	1-3. 민간공연장 활성화지원	a. 공연장대관료지원	369,553	115,097	72,995	165,617	9,533	6,311
		b. 민간소공연장지원	294,600				294,600	
	1-4.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2,837,400	1,797,400	340,000	700,000		
	소계		8,645,253	3,887,097	1,163,995	1,443,717	2,112,133	38,311
2. 국제 예술교류 지원	2-1. 예술가해외레지던스 지원		179,000	129,000	10,000			40,000
	2-2.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		857,000	803,000	10,000	44,000		
	2-3. 아르코국제예술확산지원사업		423,000	390,000		33,000		
	소계		1,459,000	1,322,000	20,000	77,000		
6. 방방곡곡 문화공감	6-1.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3,856,601	1,037,263	**1,828,715**	761,777		228,846
	6-2.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1,117,659	378,489	**381,252**	82,528	20,100	255,290
	6-2. 문화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및 배급		560,000	110,000	**450,000**			
	소계		5,534,260	1,525,752	2,659,967	844,305	20,100	484,136
8.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960,000	540,000	420,000			
합계			16,598,513	7,274,849	4,263,962	2,365,022	2,132,233	562,447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는 2건 선정에 불과하여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서의 결과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를 목적별로 정리하면 제시하면 아래 표 10 및 그림 3와 같다. 발레 분야는 3년 간의 총 선정건수 132건 중 약 92.4%에 이르는 122건이 모두 유통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것이다.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 분야에서 창작과 유통 지원의 목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비율(현대무용은 창작 약 44%, 유통 약 30%, 현대무용은 창작 약 43%, 유통 약 54%)이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발레 분야는 창작 13.4%, 유통 76.3%로 유통 지원에 많이 쏠려 있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지원정책의 구조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통 지원에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발레 분야의 침체된 창작 및 교류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어떠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표 10.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지원현황(목적별) (단위 : 건, 천 원)

지원목적	구분	전체	현대	발레	한국	통합	기타
창작 지원	선정건수	86	57	7	18		4
	지원금액	4,826,200	3,212,000	571,000	1,011,200		32,000
유통 지원	선정건수	463	135	**122**	143	27	36
	지원금액	9,058,713	2,200,849	**3,252,962**	1,276,822	1,837,633	490,447
창작+유통 지원	선정건수	103	77	3	4	16	3
	지원금액	2,713,600	1,862,000	440,000	77,000	294,600	40,000
합계	선정건수	652	269	132	165	43	43
	지원금액	16,598,513	7,274,849	4,263,962	2,365,022	2,132,233	562,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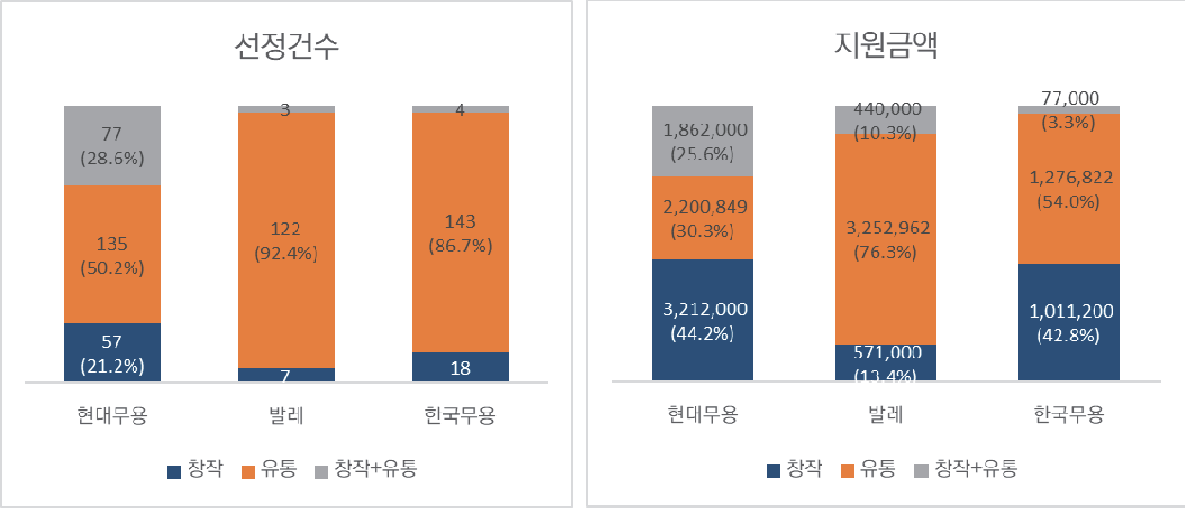

그림 3.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지원현황(목적별)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발레 분야의 창작 활동 침체 현상과 관련하여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관련 법률, 정책의 구조와 관계 안에서 무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창작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재원별, 기관별로 분석하여 정부정책의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무용 분야 창작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공연예술진흥정책의 부재이다. 발레 분야는 무용 예술의 한 장르로서, 무용을 공연예술이자 문화예술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연법」을 근거로 한 '공연예술진흥정책'은 약 10년 간 수립되고 있지 않아, 무용을 비롯한 공연예술 지원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을 토대로 한 기금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창작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전반적으로 창작 지원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유통 지원 사업도 일부 추진 중에 있으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작 지원 사업과 달리, 유통 지원 사업들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단순 경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의 유통과 소비의 장소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지원 사업은 공연장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예술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창작과 유통을 규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체계화 및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공연예술 정책과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의 연동을 통해 유통 공간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창작 지원 사업과 유통 지원 사업 간 분절성이다.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지원은 크게 창작과 유통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창작 지원을 통해 예술적 시도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유통 지원을 통해 그 시도들이 모두에게 연결되어 문화예술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두 가지 축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생태계의 가치사슬 구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창작 지원 사업과 유통 지원 사업은 서로 분절적으로 위치한다. 기존의 창작 지원 사업과 유통 지원 사업의 연계, 창작 및 유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신설 및 확장, 창작 지원 중심의 기관과 유통 지원 중심의 기관 간 협업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책사업들을 개선 및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발레 분야의 교류 활동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용 분야의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발레 분야는 지원의 수와 금액의 규모 면에서 가장 지원이 적은 장르로 확인되었다. 지원사업 선정결과와 함께 공개되어 있는 무용 분야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살펴보면, 주로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 분야의 지원자들이 다수이며, 발레 분야는 지원자가 소수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심사에 아쉬움을 느낀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는 지원사업의 심사 및 선정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발레 분야의 기회나 진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에의 참여 자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바이다. 그러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또한, 발레 분야의 지원과 선정이 거의 없다는 점에는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 정옥희(2022)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 우리나라에서는 발레단 간의 작품이나 안무가 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창작은 물론 교류 활동 마저도 심각하게 경직되어 있다. 이는 정책을 통해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발레단 및 발레인들이 발레 프로그램 교류, 작품 교류, 발레안무가 초청 등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네 번째는, 발레 분야는 창작 보다는 유통 지원 사업의 참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기하는 이유는 유통 지원 사업 자체가 공연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발레 분야의 유통 또한 대관료 보조 등 단순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창작 활동 보다도 기존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쏠려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원을 받는 공연 마저도 전통적인 공연장 중심의 접근 방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작품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유통 플랫폼 구축, 교류지원(작품 교류, 인적 교류 등), 작품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유통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발레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레 분야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한 가지 수단일 뿐, 문제의 해결은 정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며 발레계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노력이 근본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현장-교육-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며 창작발레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 및 관점에서의 연구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기홍(2016).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법학연구, 24**(1), 43-60.

강미선(2002). 무용공연 환경이 공연관람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1**(5), 49-57.

공연과리뷰 편집부(2000), (서평) 발레 창작 핸드북. **공연과리뷰, 5**.

김경영, 김성민(2020). 한국 현대발레 안무가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 한미 대학무용커리큘럼 비교를 토대로. **한국무용학회지, 20**(1), 137-147.

김보라, 김재범(2017). 아티스타 마케팅을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무용공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8**(6), 31-46.

김선주(2018). 무용공연 관람객의 관람동기가 관람몰입과 재관람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35**(4), 15-27.

남진희(2018). 무용 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공공지원의 현황 분석. **한국무용학회지, (18)2**, 73-82.

문화일보(2023년 6월 26일). '최초' '최연소' 타이틀 휩쓸며… 세계 발레단 간판된 K-무용수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62701032112310002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국제문화교류진흥 기본계획(2023~2027)**.

문화체육관광부(2023).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

박광동(2023). **「공연법」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박성혜(2020). 무용공연지원사업의 공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 관계 연구 - 창작산실 무용분야 지원사업의 사례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79**(3), 57-77.

박은혜(2022). 한국의 공연예술정책과 발레, **무용과 이론, 6**, 5-24.

박재홍(2018).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무용계에의 시사점. **한국무용과학회지, 35**(1), 111-123.

박정인, 유현우(2021). 국내 공연산업의 발전 및 화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스포츠와 법, 24**(4), 79-99.

신혜선, 조효정(2023). 대외문화정책 담론의 변천과 국가별 용어 활용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고찰.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6**(2), 65-95.

유태균, 노경일, 최윤정(2009). 무용기획 레퍼토리 성공사례 분석과 대중화 방안.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4), 343-366.

이용건, 주형철(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용공연관람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 18**(2), 365-374.

이용건, 주형철, 김화례(2016). 발레공연의 마케팅믹스 전략과 관람객과의 관계의 질 그리고 미래행동의도 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5**(2), 379-392.

이종수(2015). 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 및 과제. **공법연구, 43**(4), 1-20.

이주희(2017). **한국 문화예술지원 유형에 따른 무용공연예술의 발전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장은영(2014). **공연예술정책에 따른 한국 창작발레공연 지원 동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미애(2020). **한국 무용정책의 제도적 접근 : 문화예술진흥정책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주현(2012). 문화예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한국 창작발레의 방향 모색. **한국예술연구, (5)**, 35-62.

정옥희(2022). 생애주기로 본 발레 안무가 육성 패러다임 연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무용학회논문집, 80**(2), 199-2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2020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21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2). **2022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3). **2023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서**.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ABSTRACT

Analysis of the Policy Environment and Current Status in Korean Creative Ballet†

Sunyoung Kwon* GoYang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environment and support status related to Krean creative ballet, proposing policy improvements to enhance K-creative balle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structure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reative works in K-ballet activation. The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ituation and deriv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policies. The analysis of legal and policy environments revealed issues such as the absence of policies for promoting performing arts, fragmentation of support projects for creation and distribution, and the simplicity of distribution support projects that need improvement. The analysis of support status in the ballet field revealed problems such as low participation in support policy projects, stagnation of creative and exchange activities, and concentration in distribution support projects.

As conclusions, the study suggests formulating performing arts promotion policies integrated with existing cultural and arts promotion policy projects, enhancing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creation and distribution support policy projects and their implementing agencies, considering diversification of distribution support projects, and actively supporting ballet-related exchange activities. Above all,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discussions and collaboration among experts in the policy, field, and education sectors to realize these proposals.

Key words : creative ballet, performing arts policy, policy for ballet

논문투고일: 2023.11.30
논문심사일: 2023.12.31
심사완료일: 2024.01.19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research fund support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Associate Research Fellow, Dept. of Public Policy Research, GoYang Research Institute